

여대생들의 건강증진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상준†
부산여자대학교 치위생과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 Promotion Practice Will of Female College Students

Sang-Jun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usan Women's College

ABSTRACT As for solutions of health problems, treatment centric clinic used to be emphasized in the past for health management, but these days, attentions are concentrated on the willingness to improve the environment and lifestyle and practice health care rather than the problem of public health itself. In case of women college students, since they are boun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hildbirth and the health care of the family members after marriage in the future, their attitude and practice of health affect their future children and family as well as themselves. Therefore, women college students require the willingness to practice health improvement in order to establish the right actions for health improvement. Establishment of the willingness to practice health improvement is important also in the dimension of the national health improvement. As for the correlation of the willingness to practice health improvement and the factors that affect health, the willingness to practice health improvement was found to be strongly related with eating habit, hygiene management and health concern. As a result of analysis, the willingness to practice health improvement was affected by grade level, the high school they graduated from, whether they live with parents, whether their parents drink alcohol, household economic level, whether they drink alcohol, the frequency at which they exercise, eating habit, hygiene management and health concern and mental health in the case of women college students. In conclusion, it is judged that well-organized effective health related program shall be developed and education be provided to lift up the willingness of women college students.

Key words : Health promotion, Practice will, Female health

† Correspondence to: Lee JS,
Tel: +82-55-850-3192
Fax: +82-55-850-
E-mail: lsjsj@bwc.ac.kr

Received June 8, 2015
Revised June 26, 2015
Accepted July 9, 2015

I. 서론

건강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녕상태와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병이 부정적인 건강행위, 즉 건강행위로 인한 것임이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이들 건강행위는 수정 또는 변화가 가능하며, 각 개인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

써 그들의 건강을 더욱 향상시키고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행위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나누어 보면, 환경, 생활양식, 보건의료, 유전요인 등이 있으며 과거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치료중심의 의료가 강조되었으나 오늘날 건강문제 해결에는 보건의료 문제보다는 환경 및 생활양식의 개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eslow[1]교수는 건강실천과 신체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 변수를 찾아내었는데 아침식사, 간식을 먹지 않기, 밤에는 7~8시간 정도 수면, 술은 적당량 마시거나 안 마시기, 금연,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 규칙적인 운동 등이다.

여성은 미래의 국민을 탄생시키는 '모성'으로 여성이 건강하지 못하면 태아를 비롯한 차세대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 피임 등 모성 기능과 관련된 생식보건의 증진이 필요하고, 가사와 직장의 이중 역할부담으로 인한 건강행위 실천의 어려움과 고령화 및 나쁜 생활습관에 따라 만성병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건 의료인은 이러한 여성 건강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여대생들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고 음주 및 흡연[2], 지나친 몸매관리를 위해 무리한 식이조절을 하는 등[3] 불건강한 건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대생들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통해 출산과 육아, 가족구성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에 대한 태도 및 실천은 자신뿐 아니라 미래의 자녀와 가족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4]. 따라서 여대생들이 올바른 건강증진행위를 확립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여대생들의 건강증진생활양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을 분석하여 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교육 및 지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 소재 대학의 여대생을 편의 표본 추출하였으며, 총 2,000명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어 이 중 1,810명(90.5%)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104부를 제외한 1,706부(85.3%)를 표본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2개월간이었다.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의 설문지는 Walker 등[6], 대학생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10],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7]에서 활용된 HPLP(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여대생과 관련된 식습관 행태, 위생관리 및 건강관심, 정신건강, 건강증진 실천의지 등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6문항, 환경적 특성 8문항, 건강습관 관련 특성 14문항, 식습관 행태 11문항, 위생관리 및 건강관심 10문항, 정신건강 27문항, 건강증진 실천의지 12문항 등 총 8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 분석 방법

선행 연구 자료들[11-14]을 고찰하여 건강 영향 요인 및 건강증진 실천의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본 가정은 인구사회 및 건강습관 관련 특성이 건강 영향 요인 및 건강증진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여대생의 건강증진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영향 요인으로는 식습관 행태, 위생관리 및 건강관심, 정신건강 등이며 연구 방법은 김희선 등[3], 황홍구[5], 임미영[9], 백경신[10], 류미경 등[15], 홍외현[16], 이선혜[17]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들 연구의 기본적인 이론적 모형은 Pender가 제시한 건강증진 모형이다[18].

여대생의 인구사회 및 건강습관 관련 특성에는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건강습관 관련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 영향 요인에는 식습관 행태, 위생관리 및 건강관심,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사회 및 건강습관 관련 특성에 따른 식습관 행태, 위생관리 및 건강관심, 정신건강 이행 정도 및 건강증진 실천의지를 살펴보고, 건강증진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특성 및 건강 영향 요인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4. 자료 분석 방법

신뢰도 분석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 설문지의 일관성 확인 및 정확성, 일치성, 의존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신뢰도 알파계수(Cronbach's α)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전체 신뢰도가 0.828로 전반적으로 내적 일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처리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항 중 식습관 행태, 위생관리 및 건강관심, 정신건강, 건강증진 실천의지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건강습관 관련 특성별 분포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특성별 건강 영향 요인과 건강증진 실천의지는 기술통계, 독립표본검정(t-test), 분산분석(ANOVA) 및 Duncan 사후검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건강 영향 요인 및 건강 증진 실천의지에 대한 상관관계는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였고, 건강증진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Table 1> The health impact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factor

item	classification	eating habits	health control and health concerned	mental health
		M±SD	M±SD	M±SD
age	≤20	2.88±0.75 ^a	3.24±0.62 ^a	3.11±0.65 ^a
	21~25	2.91±0.82 ^a	3.35±0.64 ^a	3.04±0.76 ^a
	26≤	3.15±0.77 ^b	3.66±0.79 ^b	3.27±0.67 ^b
	p	p<0.001	p<0.001	p<0.001
grade	a first year	2.89±0.75	3.09±0.64 ^a	2.84±0.67 ^b
	second year	2.98±0.84	3.45±0.66 ^b	3.16±0.64 ^b
	third year	2.83±0.73	3.40±0.62 ^b	3.23±0.90 ^a
	fourth year	3.00±0.87	3.44±0.69 ^b	3.26±0.66 ^b
	p	0.191	0.012	0.014
high school	academic high school	2.93±0.80	3.32±0.66	3.10±0.71
	vocational high school	2.90±0.78	3.41±0.67	3.10±0.72
	p	0.071	0.091	0.191
residential district	metropolitan	2.92±0.80	3.35±0.67	3.13±0.72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2.92±0.75	3.33±0.60	2.95±0.70
	p	0.198	0.298	0.188
religion	yes	2.97±0.80	3.38±0.71	3.18±0.66
	no	2.86±0.78	3.30±0.59	3.04±0.75
	p	0.03	0.07	0.03

a,b: Duncan's Multiple Comparison

Ⅲ. 결과

1. 일반적 특성별 건강 영향요인

‘연령’의 경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모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6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p<0.05).

‘학년’의 경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중 위생 관리 및 건강관심,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식습관 행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교’의 경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모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환경적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주거형태’의 경우 환경적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중 식습관 행태, 위생관리 및 건강관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택에 거주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p<.05).

‘부모님 동거유무’의 경우 환경적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중 식습관 행태, 정신건강관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부모님과 동거할 때 식습관 행태가 높았고 반면에 정신건강에는 낮게 나타났다.

‘부모님 흡연’의 경우 환경적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중 위생관리 및 건강관심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흡연하지 않을 때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 음주’의 경우 건강 영향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음주하지 않을 때 높게 나타났다.

‘가정 경제수준’의 경우 건강 영향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월 용돈’의 경우 건강 영향 요인 중 식습관 행태, 위생관리 및 건강관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식습관 행태의 경우 용

돈이 작을수록, 위생관리 및 건강관심의 경우 월 용돈이 많을 때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건강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흡연’의 경우 건강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높게 나타났다(p<.05).

‘음주’의 경우 건강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음주를 하지 않을 때 높게 나타났다.

‘운동 횟수’의 경우 건강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운동을 주 1회 이상 할 때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2> The health impact of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actor

item	classification	eating habits	health control and health concerned	mental health
		M±SD	M±SD	M±SD
type of residence	home	3,00±0,80	3,38±0,67	3,09±0,73
	etc	2,72±0,74	3,26±0,64	3,14±0,68
	p	<0,001	0,013	0,512
Parents Cohabitation	yes	2,98±0,80	3,34±0,64	3,06±0,73
	no	2,81±0,76	3,35±0,71	3,18±0,68
	p	<0,001	0,576	0,017
Parents Smoking	yes	2,89±0,80	3,26±0,65	3,09±0,78
	no	2,97±0,78	3,44±0,65	3,12±0,64
	p	0,203	0,001	0,301
Parents Drinking	yes	3,02±0,60	3,09±0,42	2,70±0,57
	no	3,14±0,73	3,26±0,68	2,93±0,80
	p	0,010	<0,001	0,002
Economic levels	high	3,03±0,83 ^b	3,58±0,76 ^b	3,26±0,78 ^b
	midium	2,96±0,78 ^b	3,36±0,65 ^a	3,12±0,70 ^{ab}
	low	2,77±0,79 ^a	3,21±0,64 ^a	2,97±0,74 ^a
	p	0,001	<0,001	<0,001
Pocket money	<20	3,01±0,78	3,30±0,70 ^a	3,12±0,63
	20~30	2,89±0,80	3,29±0,64 ^a	3,06±0,74
	30≤	2,88±0,80	3,45±0,64 ^b	3,13±0,76
	p	<0,001	<0,001	0,077

a,b: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able 3> The health impact of the health characteristics factor

item	classification	eating habits	health control and health concerned	mental health
		M±SD	M±SD	M±SD
Smoking	yes	2,63±0,62	3,09±0,60	2,96±0,86
	no	2,98±0,82	3,40±0,67	3,16±0,67
	p	<0,001	<0,001	<0,001
Drinking	yes	3,00±0,64	3,06±0,43	2,72±0,59
	no	3,27±0,74	3,28±0,53	2,92±0,69
	p	<0,001	<0,001	<0,001
The number of sports	no	2,65±0,75 ^a	3,13±0,68 ^a	2,99±0,76 ^a
	sometimes	2,88±0,77 ^b	3,39±0,61 ^b	3,22±0,66 ^b
	More than once a week	3,08±0,76 ^b	3,41±0,71 ^b	3,21±0,69 ^b
	p	<0,001	<0,001	0,010
BMI	Underweight	2,96±0,80	3,26±0,61 ^b	3,11±0,71
	normal	2,91±0,80	3,41±0,66 ^b	3,11±0,69
	Hardness over obesity	2,86±0,71	3,22±0,80 ^a	3,07±0,91
	p	0,082	0,062	0,153

a,b : Duncan's Multiple Comparison

4. 건강증진 요인 상관관계

건강증진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증진 실천의지는 식습관 행태($r=.115$), 위생 및 건강 관심($r=.226$), 정신건강($r=.06$)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4> Relationship of the Factors affecting health and health promotion will put into practic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

Variables	eating habits	health control and health concerned	mental health
health control and health concerned	0,126 [*]		
mental health	0,047	0,044	
Health Promotion Practice Will	0,115 [*]	0,226 [*]	0,06

* : $p<0.05$

5. 건강증진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대생의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증진 요인 중 건강증진 실천의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건강증진 실천의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건강증진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 정도를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β 값을 통해 살펴본 결과 경제수준(β

$=-0.12$), 월 용돈($\beta=-0.05$), 운동횟수($\beta=0.51$), 식습관 행태($\beta=0.08$), 위생 및 건강관심($\beta=0.13$), 정신건강($\beta=0.05$)이 건강증진 실천의지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월 용돈이 적을수록, 운동 횟수가 많을수록, 식습관 행태가 높을수록, 위생 및 건강관심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실천의지에 긍정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들 변수의 설명력은 34.1%였다.

<Table 5> Factors that impact on health promotion will put into practice(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B	β	t
(Constant)	.94		3.10
year	.01	.01	.43
grade	-.03	-.04	-1.49
high school	.04	.02	.86
residential district	.03	.02	.66
religion	-.01	-.02	-.71
type of residence	-.01	-.01	-.25
Parents Cohabitation	-.02	-.01	-.38
Parents Smoking	-.02	-.03	-1.13
Parents Drinking	.01	.01	.56
Economic levels	-.22	-.12	-5.05*
Pocket money	-.04	-.05	-2.07*
Smoking	.04	.04	1.65
The number of sports	.34	.51	21.93*
BMI	.03	.01	.44
eating habits	.09	.08	2.14*
health control and health concerned	.17	.13	3.7*
mental health	.06	.05	2.09*
R ²		0.341	
F		35.07	
Sig.		0.000	

* : p<0,05

V. 고찰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을 비교해 보면, ‘연령’의 경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의 이행 정도는 26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의 경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중 위생관리 및 건강관심,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종교’의 경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모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높게 나타났다. 황홍구⁵⁾의 경우 대학생 연령이 높을수록 식습관 행태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이행 정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이행 정도가 낮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종교’를 지닐수록 위생관리 및 건강관심도가 높았다. 정형숙¹⁹⁾은 연령이, 박경민 등²⁰⁾은 학년이 건강 영향 요인 이행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이인수

등²¹⁾도 학년별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수행 정도에서 ‘2학년’이 ‘1학년’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여대생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을 비교해 보면, ‘주거형태’의 경우 환경적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 이행정도 중 자택에 거주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 동거유무’의 경우 부모님과 동거할 때 식습관 행태가 높았고 반면에 정신건강에는 낮게 나타났다. ‘부모님 흡연’의 경우 흡연하지 않을 때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 음주’의 경우 음주하지 않을 때 높게 나타났다. ‘가정 경제수준’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황홍구⁵⁾의 경우 부모가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운동 횟수가 많을수록 건강증진 이행 정도가 높았다.

여대생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 영향 요인을 비교해 보면, ‘흡연’의 경우 건강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의 경우 음주를 하지 않을 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동 횟수’의 경우 운동을 주 1회 이상 할 때 높게 나타났다. 김희선³⁾의 경우 BMI에서 ‘정상군’에 속해 있는 학생이 신체활동과 영양관리를 잘 하고 있었으며, 박미영⁸⁾의 건강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과 비수강생과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차이 연구에서 건강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게서 흡연과 음주율이 낮았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인수 등²¹⁾의 연구결과 건강관련 과목이수가 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변화를 주었으며,

여대생의 건강증진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건강증진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건강증진 실천의지는 식습관 행태, 위생 및 건강 관심, 정신건강과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홍구⁵⁾의 경우 성별, 연령, 학년, 운동 횟수, 식습관 행태, 위생관리 행태, 건강관심, 정신건강 등이 건강증진 행위 및 건강증진 실천의지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여대생의 건강증진 실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경제수준, 월 용돈, 운동횟수, 식습관 행태, 위생 및 건강관심, 정신건강이 건강증진 실천의지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운동횟수’가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대생들의 건강증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증진 이행 정도의 측정도구는 외국에서 개발한 도구의 응용이므로 앞으로는 우리나라 여대생에게 적합한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사회, 문화적 구조 안에서 건강증진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여대생의 건강증진 이행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고려하여 여대생들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적절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Breslow, L.: The Potential of Health Promotion D. Mechanic Handbook of Health, Health Care and Health Profession. Free Press NewYork 10:744-765, 1983.
2. Kim HK: Original Articles :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using Pender's Model.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2(2):132-141, 2006.
3. Byun YS, Ok JW: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Promoting Behaviors in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4): 715-723, 2008.
4. Fardy, P. S.: Health Promotion in Minority Adolescents: A Healthy People 2000 Pilot Study. Journal of Cardiopulmonary Rehabilitation and Prev 15(1): 65, 1995.
5. Hwang HG: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Health Promotion Behavior.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Daegu Haany University doctor's thesis, 2008.
6. Walker SN, Sechrist KR, Pender NJ. The Health Promoting Life Style Profile :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Nursing Research, 36(2):76-81, 1987.
7. Kim HS. Oh EG, Hyong HK, Cho ES: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Lifesty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9(3):506-520, 2008.
8. Park MY: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in health promoting lifestyles of college students.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Seoul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3.
9. Im MY: Determinant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Yonsei University doctor's thesis, 1998.
10. Baek KS: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4(2): 232- 238, 2003.
11. Kim BK, Jeong MS, Han Ch: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 Related Factor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9(1):59-85, 2002.

12. Kim JH: A Study on Factors Relation to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Inj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13. Han KS: Self 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3): 585-592, 2005.
14. Heo EH: A study on the Relations of Health Promoting Daily life Style and Self-Efficiency about a University Student. J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8.
15. Ryu MK, Park KM, Kim JN: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College Stud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25(1):29-42, 1999.
16. Hong YH: The Determinant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0(2):330-346, 1999.
17. Lee SH: A Study of Influencing Variable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Central Journal of Medicine* 61(12):981-994, 1996.
18. Pender NJ, Pender AR: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Intentions to Engage in Health Behavior. *Nursing Research* 35:15-18, 1986.
19. Jong HS: A comparative study on health promoting Lifestyles between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at an Evening Class of Junior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8(2):368-380, 1997.
20. Park KM, Kwon YS, Kim JN: Comparison of Health Practice and Health status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Sex.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7(2):257-264, 1996.
21. Lee IS, Choi ES: The Effect of Health Education on the Performan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E.M.T. Students. *The Korea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4(4):7-16, 2000.